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 정 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를 심리화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 배부하여 최종 295부를 가지고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방임과 불안정 애착, 심리화, 경계선 성격특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을 나누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불안정 애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심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화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애착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방임, 불안정 애착, 심리화, 경계선 성격특성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4469, E-mail : woon@catholic.ac.kr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 충동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 사회적인 기능에서의 손상과 정체감 혼란이 개인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장애이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버림받는 것, 상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자해 또는 자살 위험성이 높고 애착이 활성화되는 대상일수록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오간다. 이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는 숙련된 치료자들에게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치료가 까다롭고 평생 지속되는 장애라는 인식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더욱 움츠러들게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하여 병리의 심각성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와 치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입원과 외래 장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성격장애이며(Widiger & Trull, 1993),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서 1~6%, 임상 장면에서 외래환자의 경우 14~25%, 입원환자의 경우 20~40%로 높게 나타난다(Lenzenweger, Lane, Loranger, & Kessler, 2007; Trull, Jahng, Tomko, Wood, & Sher, 2010).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69~75%가 자해 경험이 있으며(Kjellander, Bongard, & King, 1998) 약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Schneider et al., 2008)할 정도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되며 자녀에게 정신 병리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Weiss et al., 1996).

한편, 최근 성격장애가 정상적인 성격특성과 구분되는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차원적 개념이라는 견해가 증가하면서(양은주, 류인균, 2000, Insel et al., 2010)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비임상 집단 대상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박혜원, 손정락, 2012).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

에 나타나며(APA, 1987), 35세 미만의 젊은 성인들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Stone, 1990).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DSM-IV의 축 II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 결과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비율이 13%나 되었고(Trull, 1995), 이들을 2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학업 및 대인관계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축 I 장애가 증가되었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다(Trull, Ugeda, Conforti, & Doan, 1997).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완전한 증후군으로 발전되기 전의 경계범위에 해당하는 우울과 정신 병리를 보였음을 밝혔으며, 이들이 임상 장면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군으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발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있는 젊은 성인들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Trull, 1995). 지금까지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이나 병인론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Helgeland & Torgersen, 2004; Bradley, Jenei & Westen, 2005) 변인간의 심리적 기제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이아람, 김남재, 2012).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어떤 심리적 기제로 발달하며 이런 발달 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초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Ball & Links, 2009), 낮은 수준의 양육, 부모의 정신 병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 등 광범위한 방임과 학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고하였다(Stepp, Lazarus, & Byrd., 2016). 외상은 그 심각도에 따라 비대인 외상(예: 자연재해), 대인 외상(예: 동료나 낯선 사람에 의한 학대), 애착 외상(예: 애착 대상에 의한 학대)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구분될 수 있다(Allen, 2005). 개별 외상 사건 이후에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결핍이 있거나 회복이 더딘 개인들은 기존의 취약성과 더불어 빈약한 사회적 지지 및 정서 조절 전략을 보임으로써 부적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Miron & Orcutt, 2014).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최근 경계선 성격장애를 복합 외상(Complex trauma) 또는 복합 외상 후 장애(Complex PTSD: CPTSD)로 재개념화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Giourou et al., 2018). 복합 외상은 애착과 돌봄을 받는 초기 양육 환경에서 방임과 학대 또는 이 둘 중 하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동시에 불안, 위협, 방임 및/또는 학대의 가해자가 된다(Asnes & Leventhal, 2011). 이러한 복합 외상은 Type II 외상(Terr, 1992), 애착 외상(attachment trauma: Allen et al., 2001), 초기관계 외상 또는 초기 발달 외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다(Luyten, Campbell, & Fonagy, 2019). 복합 외상 후 장애(CPTSD)는 전형적인 PTSD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 곤란, 대인관계 문제, 정체성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 역기능적 자기-조직 증상을

포함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데, 특히 정체성 손상, 과도한 분노, 고통 감소 행동 및 자살 등을 들 수 있다(Briere, Godbout, Daspe & Runtz, Cyr, 2019). 이러한 증상들은 촉발된(triggered) 암묵적 기억, 부정적 관계 도식 및 심각한 아동기 대인 외상 등과 관련된 외상-동기화된 정서들에서 비롯되며(Herman, 1992), 유발된 정서적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고통 감수 또는 잠재적으로 자기 손상을 일으키는 경계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Briere,., Hodges, & Godbout, 2010). 최근 여러 연구에서 외상, 특히 복합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되는 취약성과 인과적 관련성이 있다는 일관된 증거들이 있으며(Stepp et al., 2016), 90% 이상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 경험을 보고하였다(Chanen & Kaess 2012).

경계선 성격장애는 20세기 말부터 정신분석 전통의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가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Mahler(1971)가 기술한 분리-개별화 단계에서의 실패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Adler(1985)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이는 유아기에 부모가 가용하거나 의지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Mastenson과 Rinsley(1975)는 분리-개별화 시기에 선택적인 모의 가용성(availability)은 이후 경계성 병리의 선행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즉 모가 일관되게 아이에게 가용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공생적 욕구는 수용하나 아이의 자율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Melges와 Swartz (1989) 또한 과잉통제와 정서적 방임이 결합된 아동기 경험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애착 대상에게 삼켜

지는 것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오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애착 외상과 더불어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방임된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동시에 확인하는 연구들은 있었으나(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Briere et al., 2019), 정서적 방임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Patrick, Hobson, Castle, Howard, & Maughan, 1994)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아동기 외상들보다 ‘방임되어’ 왔다. 아동기 방임의 유형률에 대한 메타 분석(Stolteborgh, Bakermans-Kranenburg & Ijzendoorn, 2013)에서 정서적 방임이 전 세계적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 신체 방임, 성적 학대와 같은 다른 아동기 외상에 비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방임과 학대는 서로 다른 유형의 외상으로 알려져 있으며(Briere & Runtz, 199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서적 학대도 별개의 유형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신체적 방임은 정서적 방임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Egeland & Erickson, 1987). 다른 아동기 외상에 비해 정서적 방임은 아동기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우며 예방적 개입이 어렵다(Brassard & Hardy, 1997)는 점에서 다른 외상들에 비해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에 대한 거부 및 긍정적 정서 표현의 결여,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 애정 철회,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 등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부모의 행동을 나타낸다(Glaser,

2002; Minty, 2005). 정서적으로 방임된 아동은 물리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 및 학업적 결손, 사회적 철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보고하였으며(Lee & Hoaken, 2007), 정신 병리(Gauthier, Stollak, Messé, & Aronoff, 1996) 및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성격장애와 더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Johnson, Smailes, Cohen, Brown, & Bernstein, 2000)이 있다.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장애가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정서경험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초래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즉 아동의 반응과 경험이 무시되는 정서무시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에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감정 억제와 감정 폭발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정서조절 불능이라는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Erickson과 Egeland(1996)는 정서적 방임을 양육자의 ‘심리적 비가용성(psychological unavailability)’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의 고통에 대해 따뜻하게 위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리를 두는 것, 혹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아동기 외상 경험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정서적 방임이 정서적 학대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철회, 행동화 문제, 학업적 곤란 등의 문제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보였으며 문제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방임은 부모의 요구와 갈등, 두려움 및 투사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요구가 거부되고 억제되므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아동에게 잠재적인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Schimmenti & Caretti, 2016). 아동기 외상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주요 매개변인으로 수치심, 거절 민감성, 성인 애착양식,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기 외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 애착이다.

애착(attachment)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를 의미한다. Bowlby(1982)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도식 또는 각본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애착을 설명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Bowlby(1984)는 아이가 정서적 고통을 겪을 때 애착 대상이 아이에게 접촉, 안심, 위로를 제공할 경우 아이의 정서 조절 및 안녕감이 높아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에서 아이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보았다(Bowlby, 1984). Hazan와 Shaver(1987)는 성인을 대상으로 Bowlby (1984)의 이론을 확장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유기 불안과 친밀감 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초기 양육환경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애착 도식은 전형적으로 부정적이다(Briere et al., 2019). 이러한 외상적 환경에서 아동은 자기와 타인의 부정적 성격 특성을 추론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며, 그로 인해 직관적으로 자신이 수용받기 힘들고 사랑스럽지 않거나 약하다고 보는 동시에 타인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거부적이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Godbout, Briere, Lussier, & Sabourin, 2014). 그 결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도식을 내면화하게 되고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Ainsworth(1989)는 애착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성인기의 애착유형을 안정, 불안, 회피 애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애착 유형이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성격특성이나 성향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llen, Fonagy와 Bateman(2008)은 경계선 환자들이 초기 양육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방임된 경험을 많이 보고하였으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비가용성은 아동의 애착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애착 체계가 손상되면 탐색, 학습, 정서조절, 대인관계 기능 등 발달의 주요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Lyons-Ruth, 2003).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이 많이 나타났으며(김윤숙, 2005; Fonagy, 2000),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선행 연구와 이론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근본적인 특징, 즉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 관계, 공허한 감정, 분노의 폭발, 만성적인 유기에 대한 두려움, 혼자임을 못 견뎌, 안정된 자기감의 부족 등이 애착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Beeney 등, 2017; Fonagy, Target, & Gergely, 2000).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종단 연구들(예: Carlson, Yates & Sroufe, 2009)은 초기 애착 경험이 이후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가 되며, 일생 동안 내면화된 인지도식의 정교화 및 통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 김환과 한수미(2015)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애착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정신분석 분야에서 병인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로 심리화에 주목하고 있다. Fonagy(1989)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심리화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양육자가 아이의 마음을 적절히 반영해주어 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표상을 잘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Allen 등(2008)은 심리화를 개인의 욕망, 욕구, 감정, 신념, 이성과 같은 의도적 심리상태를 기초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내재적, 외현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자가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보여주며 반영(mirroring)을 통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담아주게 되면, 유아는 실제 현실과 표상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연합하는 기제를 학습하게 되면서 심리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Fonagy & Target, 2003). 요약하면, 심리화 능력은 초기 애착 관계 맥락에서 발달하며, 심리화는 마음 상태에 대한 표상으로서 자기감과 정체성, 정서 조절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한편 심리화 역량은 초기 애착 관계에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밀접한 사회적 맥락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6). Fonagy(1991)는 초기 애착 경험 그 자체 보다 과거와 현재의 애착 대상과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개인이 취하는 성찰적 태도가 성격과 대인관계 양상에 근본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초기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라도 심리화 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애착 관련 외상적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병리적 대처양식 혹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중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Fonagy, Target, Steele과 Steele(1998)은 초기에 면접식 심리화 척도인 성찰 기능(Reflective functioning) 척도를 개발하면서 마음의 발달적 속성을 고려하였다. 이들은 마음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심리화는 성인이 되더라도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정되고 변화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화 역량이 발달 초기에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Fonagy et al., 2000)고 하였다. 특히 Fonagy, Gergely, Jurist 와 Target(2002)은 개인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심리화를 통해 감정을 지각하고 명명(labeling)할 수 있으며, 역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도 심리화 수준이 높을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nagy 등, 1996). 이를 통해 심리화는 외상 경험의 맥락에서 회복 요인 또는 긍정적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Luthar, Cicchetti, & Becker, 2000)고 볼 수 있다.

심리화를 기반으로 한 치료(Mentalized Based Treatment: MBT)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뿐 아니라 우울증, 섭식장애, 다른 성격장애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teman & Fonagy, 2016). Fonagy와 동료들(1996)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대를 경험한 성인 가운데 심리화 기능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애로 진단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심리화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애착과 심리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불안정 애착이 다양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가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심리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심영숙(2010)은 아동기 외상이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찰기능, 즉 심리화가 조절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최현아와 송현주(2017)는 청소년의 외상 경험이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화 능력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현주와 안명희(2012)는 어머니의 심리화 능력이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임을 밝혔다. 박세미와 정남운(2019)은 자기보고식 심리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심리화가 불안정 애착, 정신 병리, 경계선 성격특성의 효과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 불안정 애착, 심리화가 어떤 심리적 기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방임 경험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가 조절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아동기에 부모가 아동의 마음을 담아주거나 외상이 있더라도 충분히 정서적 돌봄을 받을 경우 안정적

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내적 조절능력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양육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경계선 성격특성이나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 정서적인 돌봄이 부족하고 주요 대상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심리화 역량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고, 불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성인 불안정 애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친밀관계경험척도(ECR-R)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ECR-R을 사용하여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Preacher와 Rucker 및 Hayes(2007)가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검증모형에 근거한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Preacher et al., 2007)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변인을 거치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조절변인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한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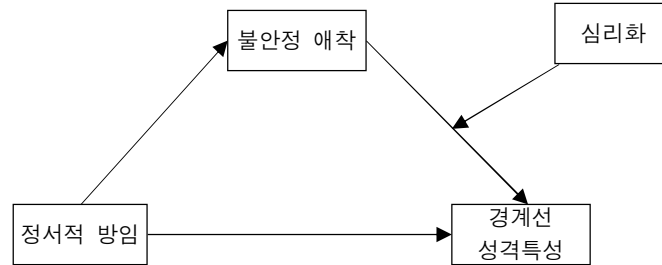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이상균, 2008).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탐색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통합적인 모델을 가정한다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불안정 애착은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불안정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가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인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1040395-201902-02)을 받아 실시되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안내와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02

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29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02명(34.6%), 여자가 187명(63.4%), 학년별로는 1학년 46명(15.6%), 2학년 72명(24.4%), 3학년 123명(41.7%), 4학년 47명(15.9%), 4학년 초과 인원 3명(9%)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1.46세($SD=3.43$)이었다.

측정 도구

정서적 방임

성인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Bernstein과 Fink(1998)가 제작한 것을 이유경(2006)이 번안해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방임 척도만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문항으로 ‘전혀 없었다(1점)’에서 ‘자주 있었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정서적 방임 척도의 문항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채점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을 많이 경험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이었다.

불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성현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를 사용하였다. 친밀관계경험척도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각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애착 불안 하위척도는 거절에 대한 공포와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애착 회피 하위 척도는 의존성 또는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예.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불안/회피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현의 연구(2004)에서 내적 합치도는 애착 불안 .89, 애착 회피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 애착 불안은 .93, 애착 회피는 .92이었다.

심리화

Hausberg 등(2012)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심리화 질문지를 최현아, 송현주(2014)가 교신저자의 승인을 얻은 뒤 번안한 한국판 심리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자기성찰 거부, 감정 자각, 정신동등모드, 정서 조절 등의 심리화와 관련된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성찰 거부 요인은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두려워서 감정을 차단하는 태도를 말한다(예. 대체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낫다). 감정 자각 요인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지각하거나 변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가끔 나는 돌이켜 생각해보고 나서야 그때 감정들을 알게 된다). 정신동등모드 요인은 내적 상태와 외부 현실을 모두 동일하게 지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예. 누군가 나를 지적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종종 겁을 먹는다). 정서 조절 요인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종종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화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Hausberg 등(2012)의 연구에서 .81, 최현아와 송현주(2017)의 연구에서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특성

경계선 성격특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를 사용하였다. Morey(1991)가 개발하고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한 것으로 정서적 불안정(예.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정체감 문제(예.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많이 바뀐다), 부정적 관계(예.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고 싶다), 자기 손상(예.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홍상황과 김영환의 연구(1998)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애착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효과가 심리화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한 후,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Muller와 Judd, Yzerbyt(2005)가 제안한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먼저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없음을 순차적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후,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조절효과는 Aiken, West와 Reno(1991)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Preacher et al.(2007)가 제공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고, John-Neyman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변인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Bootstrapping 분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95)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과 다중 공선성 및 등분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술통계에서 모형 분석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2.10으로 2에 가까우며 VIF값이 3보다 작아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방임은 불안정 애착($r=.42, p<.001$)과 경계선 성격특성($r=.49, p<.0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조절변인인 심리화($r=-.41,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변인인 불안정 애착은 심리화($r=-.75, p<.001$)와 부적상관을, 경계선 성격특성($r=-.65,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심리화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부적상관($r=-.67, p<.001$)을 나타냈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0).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 별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방임은 불안 애착($r=.39, p<.001$)이 회피 애착($r=.31, p<.001$)에 비해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심리화는 불안 애착($r=-.75, p<.001$)이 회피 애착($r=-.49, p<.001$)에 비해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은 불안

표 1.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95)

	정서적 방임	불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심리화	경계선 성격특성
정서적 방임	1					
불안정 애착	.42***	1				
불안 애착	.39***	.86***	1			
회피 애착	.31***	.81***	.40***	1		
심리화	-.41***	-.75***	-.75**	-.49**	1	
경계선 성격특성	.49***	.65***	.77**	.31***	-.67***	1
평균	1.71	3.43	3.35	3.49	3.52	2.00
표준편차	0.74	0.86	1.11	0.96	0.71	0.46
왜도	0.93	0.12	0.29	-0.03	-0.14	0.90
첨도	-0.01	-0.38	-2.22	-0.48	-0.06	1.11

주. *** $p < .001$

애착($r = .77, p < .001$)이 회피 애착($r = .31, p < .001$)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조절된 매개효과 기본 가정 확인

Muller 등(2005)은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조절변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독립변수

의 직접 효과가 아닌, 매개변수를 통한 독립변수의 간접효과임을 의미한다(James & Brett,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를 먼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Baron & Kenny(1986)의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절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B = .00, p > .05$)과 결정계수 증가분($\Delta R^2 = .00, F = 97.79, p > .05$)이 유의하지 않

표 2.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	β	t	R ²	ΔR^2	F
1	정서적 방임	0.30	.03	9.57***	.24	.24	91.65***
2	정서적 방임	0.16	.26	5.67***	.50	.26	147.18***
	심리화	-0.37	-.56	-12.44***			
3	정서적 방임(A)	0.15	.24	1.25	.50	.00	97.79
	심리화(B)	-0.37	-.57	-5.38***			
	A x B	0.00	.02	0.11			

주. *** $p < .001$

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화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

불안 애착이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 특성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B=.30, p<.001$)과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에 미치는 영향($B=.5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 정서적 방임과 불안 애착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B=.14, p<.001$)이 유의미하여 불안 애착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표 3) 매개효과 계수는 .14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정서적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효과(.30) 중에서 직접효과(.14)와 간접효과(.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

회피 애착이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 특성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B=.30, p<.001$)과 정서적 방임이 회피 애착에 미치는 영향($B=.3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 정서적 방임과 회피 애착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B=.27, p<.001$)이 유의미하여 회피 애착이 부분매개하고 있

표 3.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검증	<i>B</i>	<i>se</i>	β	<i>t</i>	<i>R</i> ²	<i>F</i>
정서적 방임 → 경계선 성격특성	0.30	.03	.49	9.57***	.24	91.65***
정서적 방임 → 불안 애착	0.59	.08	.39	7.30***	.15	53.27***
정서적 방임 → 경계선 성격특성	0.14	.03	.22	5.64***	.62	232.01***
불안 애착 → 경계선 성격특성	0.28	.02	.67	16.91***		
Bootstrapping(5,000)	<i>Effect</i>	<i>SE</i>	95% CI			
			Low	High		
	.16	0.02	.109	.222		

주. *** $p<.001$

표 4.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검증	B	se	β	t	R ²	F
정서적 방임 → 경계선 성격특성	0.30	.03	.49	9.57***	.24	91.65***
정서적 방임 → 회피 애착	0.39	.07	.31	5.48***	.09	29.98***
정서적 방임 → 경계선 성격특성	0.27	.03	.44	8.24***	.27	52.42***
회피 애착 → 경계선 성격특성	0.08	.03	.17	3.27**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3	0.02	.007	.067

주. *** $p < .001$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 애착과 같은 방식으로 PROCESS Macro를 통해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03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정서적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효과(.30)중에서 직접효과(.27)와 간접효과(.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 사이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에 불안 애착($B = .23, p < .001$)은 정적 영향을, 심리화($B = -.15, p < .001$)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B = -.09, p < .001$) 역시 경계선 성격특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심리화의 조절효과를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가 낮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화가 높을수록 불안 애착과 경계

표 5.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ΔR^2
불안 애착		0.23	.02	.59	10.24***	.57	.57
심리화	경계선 성격특성	-0.15	.04	-.23	-4.18***	.59	.02
불안 애착 x 심리화		-0.09	.02	-.51	-4.87***	.63	.0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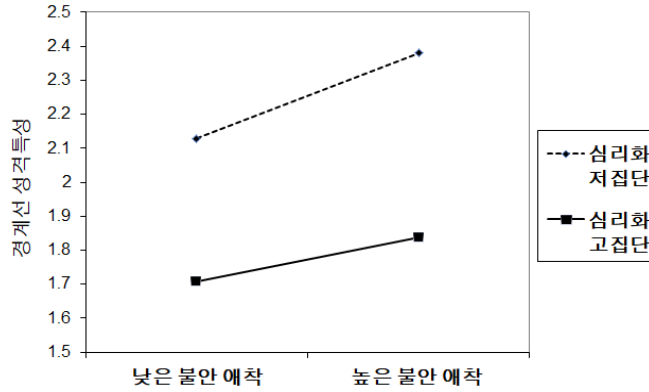


그림 2.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그래프

선 성격특성 간의 정적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화가 높을수록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화와 불안정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iken et al.(1991)이 제시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조절변인의 특정 값(-1SD, 평균, +1SD)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PROCESS Macro를 통해 특정 값에서 단순회귀선이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화는 -1SD 수준, 평균 수준, 그리고 +1SD 수준 모두에서 단순회귀선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화의 조건 값에 따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회피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 사이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관계에서 회피 애착과 심리화의 상호작용 변인($B=.02, p>.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에서도 95% 신뢰구간 $\{-.030 \sim .073\}$ 에서 0을 포함하여 회피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표 6.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심리화 수준	Effect	SE	t	95% CI	
				Low	High
-1SD	.29	.02	11.92***	.24	.33
Mean	.23	.02	10.45***	.19	.28
+1SD	.17	.03	6.33***	.12	.22

주. *** $p<.001$

표 7. 회피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ΔR^2
회피 애착		-0.02	.02	-.04	-0.62	.09	.09
심리화	경계선 성격특성	-0.45	.03	-.69	-13.74***	.45	.36
회피 애착 x 심리화		0.02	.03	.14	0.83	.46	.00

주. *** $p < .001$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방임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에서 불안 애착에서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을 매개한다는 것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Model 14 사용)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회피 애착에서는 심리화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조절된 매개 분

표 8. 정서적 방임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변수모형 (종속변수: 불안 애착)					
	B	SE	t	95% CI		
				Low	High	
상수	-1.04	.15	-6.70***	-1.30	-.71	
정서적 방임	0.59	.08	7.30***	.43	.75	
	조절변수모형 (종속변수: 경계선 성격특성)					
	B	SE	t	95% CI		
				Low	High	
	상수	1.78	.05	36.33***	1.74	1.94
	정서적 방임	0.11	.03	2.49***	.02	.13
	불안 애착	0.22	.02	10.23***	.19	.27
	심리화	-0.12	.04	-3.13**	-.19	-.05
불안 애착 x 심리화	-0.08	.02	-4.39***	-.12	-.04	
조절된 매개 지수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CI		
				Low	High	
			.013	-.071	-.023	
		-.046				

주. ** $p < .01$, *** $p < .001$

표 9. 정서적 방임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심리화 수준	Effect	SE	95% CI	
			Low	High
-1SD	.160	.029	.106	.218
Mean	.127	.025	.082	.178
+1SD	.095	.023	.05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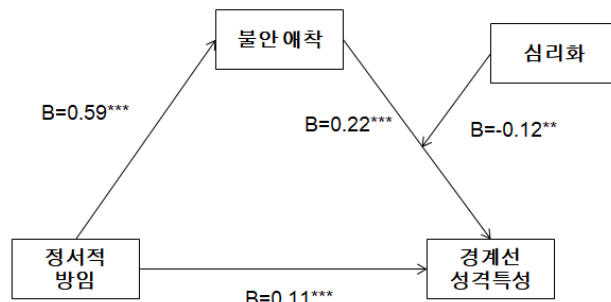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 모형

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59, t=7.30^{***}, p<.001$), 심리화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2, t=3.13^{***}, p<.01$). 또한 불안 애착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22, t=10.23^{***}, p<.001$), 불안 애착과 심리화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8, t=-4.39^{**}, p<.001$).

조절된 매개변인의 유의성을 PROCESS를 통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Preacher et al., 2007), 그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046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0.071 ~ -0.023}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화의 조건 값에 따른 간

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변수인 심리화가 -1SD 수준, 평균 수준, 그리고 +1SD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화 값이 커질수록 정서적 방임에서 불안 애착을 경유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심리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を対象으로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이 어떠한 경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의 매개효과와 이를 조절하는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두 가지 유형의 불안정 애착의 매개효과와 불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심리화의 조절효과 및 이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양육환경에서 정서적 방임을 경험할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 중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상관이 유의한 외상 요인들은 정서적 방임($r=.49, p<.001$), 정서적 학대($r=.45, p<.001$), 신체학대($r=.27, p<.001$)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방임과 정적 학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중에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가장 상관이 높다는 선행연구(Luyten et al., 2019)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주요 원인이고 이런 손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Hart, Binggeli, & Brassard, 1998)를 지지하며, 경계선 성격장애를 초기 양육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애착 외상 또는 복합 외상으로 설명하는 이론 및 연구들(Asnes &

Leventhal, 2011, Luyten et al., 2019)과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요구가 거부되고 적절한 심리적 돌봄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는 아동에게 잠재적인 외상이 될 수 있으며(Schimmenti & Caretti, 2016), 이는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김은희, 이인혜, 2016)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극단적 감정 억제나 감정 폭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정서조절 불능 및 대인관계 어려움과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이 형성될 수 있다(Linehan, 1993)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방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기 외상으로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Stolteborgh et al., 2013)와 일치한다. 한편 불안정 애착은 경계선 성격특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 유형 중 불안 애착이 회피 애착에 비해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몰입형 및 두려움 애착 유형과 같은 불안 애착을 많이 보인다(Agrawal, Gunderson, Holmes, & Lyons-Ruth, 2004)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화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불안정 애착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 애착에 비해 불안 애착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심리화 능력의 손상과 관련되며(Bateman & Fonagy, 2006), 특히 초기 외상이나 애착 문제가 심리화의 결손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Meins, Fernyhough, Russell, & Clark-Carter, 1998)와 일치한다.

둘째,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애착 대상자인 양육자가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않을 때 유아가 자기와 타인 및 관계에서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되고, 방어적인 이차적 애착 전략으로 애착대상에 대해 과잉 활성화 또는 과소 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 (Mikulincer & Shaver,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근본적인 특징, 즉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 관계, 공허한 감정, 분노의 폭발, 만성적인 유기에 대한 두려움, 혼자임을 못 견뎌, 안정된 자기감의 부족 등이 애착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경험적 연구들(Beeney et al., 2017; Fonagy et al., 2000; Briere et al., 2019)과 일치한다. 이는 또한 두려움 애착유형과 관계 회피 유형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많이 나타난다(Fonagy & Luyten, 2009)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정서적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가 회피 애착의 매개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애착의 경우, 정서적 방임이 애착을 경유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서적 방임의 직접 효과에 비해 높았다. 반면 회피 애착의 경우, 정서적 방임이 직접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매개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애착을 경유하는 간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을 필요로 하며 애착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불안 애착 유형은 거부 단서와 유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정서에 의존

하므로 경계선 성격 특성과 관련이 높다. 회피 애착은 일반적으로 정서 및 관계에서 철수하는 양상이 많으며(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과 관련된 욕구나 관심을 비활성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Bateman & Fonagy, 2006). 즉 회피 애착 유형은 각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애착의 비활성화 전략이 무너지고 불안전감과 부정적 자기표상과 관련한 정서들이 커지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과도하게 인지적이 된다 (Mikulincer, Dolev, & Shaver, 200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회피 애착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불안 애착과 달리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모두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만날 때 애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내담자의 애착 유형에 맞게 자기 개념과 인지도식, 정서 조절 및 대처 방식 등을 고려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 특성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심리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불안 애착과 심리화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화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심리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과정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일수록 애착 대상을 신뢰하거나 의존하기 어렵고 접근-회피 갈등이 커지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심리화 수준이 높아질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초기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라도 심리화 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애착관련 외상적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병리적 대처양식 혹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중재할 수 있다는 Fonagy(199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의 매개효과가 심리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심리화가 단순히 불안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심리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불안 애착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방임되고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외상 경험으로 인해 안정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개인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내적으로 체험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심리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정서적으로 가용하지 않은 애착대상에게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심리화 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접촉하고 통합하는 역량이 더 취약하게 되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 존재로 이해하고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정신 병리적 증상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들

(Allen, 2005; Fonagy et al., 1996, Bateman & Fonagy,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 학대가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화가 조절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된다(심영숙, 2010). 또한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과 양육환경에서의 결핍이 잠재적으로 경계선 병리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Nickell, Waudby, & Trull,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발달적 및 병인론적 관점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여하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이르는 경로에서 예측변인 및 조절변인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인론적 관점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며, 양육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반응과 적절한 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만성적인 정신 병리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외상경험으로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주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발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애착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외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외상 사건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 병리로 가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심리화의 조절기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외부 참조체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에게 심리화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Liberman과 Amaya-Jackson (2005)가 주장한 주 양육자에 의한 외상(trauma-by-primary caregiver) 이론의 관점, 즉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의 방임(Lieberman & Amaya-Jackson, 2005) 및 양육자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만성적 외상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실패(Fonagy et al., 2002) 하는 것이 불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기에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복합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되는 취약성과 인과적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Channen & Kaess, 2012; Stepp et al., 2016).

또한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과정과 보호요인으로서의 심리화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상담 실무에서 치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심리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역경을 경험하면서 오롯이 혼자라고 느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상황에 봉착할 때 그 역경이 외상이 된다(Allen, 2013). 이러한 외상경험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그리고 관계에 부정적인 도식을 형성하여 관계를 통해 학습하고 소통하는데 실패하여 잠재적으로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심리화는 외상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이자 치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소화되지 못했던 경험들을 담아주고 안전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내담자가 자기감과 통제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복합 외상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데 심각한 문제

가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외상적 경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재구조화하는 ‘관계적 참조(relational referencing)’를 시도하는데 제한적이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Luyten et al., 2019). 이들에게 상담 장면에서 심리화 되지 않았던 경험을 심리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 문제를 비롯한 정신병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하다. 최근 해외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한 주요 변인으로써 심리화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신과 타인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개입에 있어 심리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표집을 특정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만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에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비임상 집단과 비교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적 면접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동기 외상 척도, 성인 애착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심리화 척도가 해외 및 국내에서 타당도를 인정받은 척도로 해당 척도의 구성개념을 적절

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 경험은 과거를 회고하여 지각된 결과이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나머지 변인들도 동일 시점에 회상에 의한 자기보고이므로 시간적 일관성이나 성격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시간차 없이 측정되었으므로 각 변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발달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 심리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국내에 충분하지 않으며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75-87.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462-463.
- 김은희, 이인혜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 대상적 자기 손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03-1022.
- 김환, 한수미 (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51-274.
- 박세미, 정남운 (2019). 자기보고식 심리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929-965.
- 박혜원, 손정락 (2012). 성인초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기질,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16.
- 송현주, 최현아 (2017). 16-17세 한국 청소년의 정신화 척도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3), 391-401.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 병리의 관계: 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주, 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 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정신병리학*, 9(1), 3-15.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1), 121-151.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최현아, 송현주 (2017).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179-208.
- Adler, G. (1985). *Borderline Psychopathology and its Treatment*. New York: Jason Aronson.

- Agrawal, H. R., Gunderson, J., Holmes, B. M., & Lyons-Ruth, K. (2004). Attachment studies with borderline patients: A review.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2), 94-104.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
- Ainsworth, M. D.,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
- Allen, J. G., Huntoon, J., Fultz, J., Stein, H., Fonagy, P., & Evans, R. B. (2001). A model for brief assessment of attachment and its application to women in inpatient treatment for trauma-related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3), 421-447.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USA.
- Allen, J. G. (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London, UK: Karnac Book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Health Disorders (DSM-III-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snes, A. G., & Leventhal, J. M. (2011). Connecting the dot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trauma.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5*(1), 87-89.
- Ball, J. S., & Links, P. S. (200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childhood trauma: evidence for a causal relationship. *Current psychiatry reports, 11*(1), 63-6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teman, A., & Fonagy, P. (2006).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185-200*.
- Bateman, A., & Fonagy, P. (201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personality disorders: A practical guid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eeney, J. E., Wright, A. G. C., Stepp, S. D., Hallquist, M. N., Lazarus, S. A., Beeney, J. R. S., ... Pilkonis, P. A. (2017). Disorganized attachment and personality functioning in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8*(3), 206-216.
- Bernstein, D. P., Fink, L., Handelsman, L., & Foote, J.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1), 9-27.

- Bradley, R., Jenei, J., & Westen, D. (2005). 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intercorrelated anteced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3(1), 24-31.
- Brassard, M. R., & Hardy, D. B. (1997). *The battered child* (5th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ere, J., Godbout, N., Daspe, M. È., Runtz, M., & Cyr, G. (2019). Childhood maltreatmen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related symptoms: Gender-specific structural equation model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1), 90-98.
- Briere, J., Hodges, M., & Godbout, N. (2010). Traumatic stress, affect dysregulation, and dysfunctional avoidanc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3, 767-774.
- Briere, J., &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Carlson, E. A., Yates, T. M., & Sroufe, L. A. (2009). Development of Dissoc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lf. In P. F. Dell, J. O'Neil, & E. Somer (Eds.), *Dissociation and the Dissociative Disorders*. New York: Routledge.
- Chanen, A. M., & Kaess, M. (2012). Developmental pathways t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14, 45-53.
- Egeland, B., & Erickson, M. (1987). Psychologically unavailable caregiving. In M. Brassard, B. Germain, & S. Hart (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pp. 110-120). Elmsford, NY: Pergamon Press.
- Erickson, M. F., & Egeland, B. (1996). Child neglect. In J. Briere, L. Berliner, J. A. Bulkley, C. Jenny, & T. Reid (Eds.),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onagy, P. (1989). On tolerating mental states: Theory of mind in borderline patients. *Bulletin of the Anna Freud Centre*, 12, 91-115.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129-1146.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L.,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Y: Other Press.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R., Mattoon, G., ... & Gerber, A. (1996).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22-31.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8, 350-365.
- Fonagy, P., Target, M., & Gergely, G. (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theory and some evidence.

- Psychiatric Clinics*, 23(1), 103-122.
- Fonagy, P., & Target, M. (2003).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Whurr publishers.
-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0,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161-2.
- Gauthier, L., Stollak, G., Messé, L., & Aronoff, J. (1996). Recall of childhood neglect and physical abuse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20(7), 549-559.
- Giourou, E., Skokou, M., Andrew, S. P., Alexopoulou, K., Gourzis, P., & Jelastopulu, E. (2018).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need to consolidate a distinct clinical syndrome or to reevaluate features of psychiatric disorders following interpersonal trauma?. *World Journal of Psychiatry*, 8(1), 12-19.
- Glaser, D. (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 Neglect*, 26(6-7), 697-714.
- Godbout, N., Briere, J., Lussier, Y., & Sabourin, S. (2014). Child sexual abuse and subsequent relational and personal functioning: The role of parental support. *Child Abuse & Neglect*, 38, 317-325.
- Hart, S. N., Binggeli, N. J., & Brassard, M. (1998). Evidence for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1(1), 27-58.
-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öpper, M., Brütt, A. L., ... & Andreas, S.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Psychotherapy Research*, 22(6), 699-70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secon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lgeland, M. I., & Torgersen, S. (2004).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5(2), 138-147.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NY: Basic Books.
- Insel, T., Cuthbert, B., Garvey, M., Heinszen, R., Pine, D. S., Quinn, K., ... & Wang, P. (2010). Research domain criteria (RDoC): toward a new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research on 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 748-751.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307.
- Johnson, J. G., Smailes, E. M., Cohen, P., Brown, J., & Bernstein, D. P. (2000). Associations between four types of childhood neglect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Findings of a

- community-based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4(2), 171-187.
- Kjellander, C., Bongard, B., & King, A. (1998). Suicidal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sis*, 19, 125-13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V., & Hoaken, P. N.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2(3), 281-298.
- Lenzenweger, M. F., Lane, M. C., Loranger, A. W., & Kessler, R. C. (2007). DSM-IV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Biological Psychiatry*, 62, 553-564.
- Lieberman, A. F., & Amaya-Jackson, L. (2005). Reciprocal influences of attachment and trauma: Using a dual len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In L. J. Berlin, Y. Ziv, L. Amaya-Jackson, & M. T. Greenberg (Eds.), *Duke series in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Enhancing early attachments: Theory, research, intervention, and policy* (p. 100-124). New York: Guilford Press.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Vol. 51). New York: Guilford Press.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Luyten, P., Campbell, C., & Fonagy, P. (2019). Reflections on the contributions of Sidney J. Blatt: The dialectical needs for autonomy, relatedness, and the emergence of epistemic trust. *Psychoanalytic Psychology*, 36(4), 328-334.
- Luyten, P., Van Heel, M., De Meulemeester, C., Vanwalleghem, D., Vermote, R., & Lowyck, B. (2019). Mentalizing based on external featur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ared with healthy controls: the role of attachment dimensions and childhood trauma.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3(6), 736-750.
- Lyons-Ruth, K. (2003). Dissociation and the parent-infant dialogue: A longitudinal perspective from attachment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51(3), 883-911.
- Mahler, M. S. (1971). A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to borderline phenomena in the psychoanalytic situat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6(1), 403-424.
- Masterson, J. F., & Rinsley, D. B. (1975). The borderline syndrome: The role of the mother in the genesis and psychic structure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6, 163-177.
- Meins, E., Fernyhough, C., Russell, J., & Clark-Carter, D. (1998). Security of attachment as a predictor of symbolic and mentalising 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7(1), 1-24.
- Melges, F. T., & Swartz, M. S. (1989). Oscillations of attachment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146(9), 1115-1120.
- Mikulincer, M., Dolev, T., & Shaver, P. R. (2004).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during thought suppression: Ironic rebounds and vulnerable self-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940-95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446, 46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Attachment theory expanded: A behavioral systems approach. In K. Deaux & M. Snyder (Eds.),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The Oxford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 467-492). Oxford University Press.
- Minty, B. (2005). The nature of emotional child neglect and abuse. In J. Taylor & B. Daniel (Eds.), *Child Neglect: Practice issues for health and social care* (pp. 57-72). Philadelphia,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Miron, L. R., & Orcutt, H. K. (2014). Pathways from childhood abuse to prospective revictimization: Depression, sex to reduce negative affect, and forecasted sexual behavior. *Child Abuse & Neglect*, 38(11), 1848-1859.
- Morey, L.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ickell, A. D., Waudby, C. J., & Trull, T. J. (2002). Attachment, parental bond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6(2), 148-159.
- Patrick, M., Hobson, R. P., Castle, D., Howard, R., & Maughan, B. (1994).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arly social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2), 375-38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chimmenti, A., & Caretti, V. (2016). Linking the overwhelming with the unbearable: Developmental trauma, dissociation, and the disconnected self. *Psychoanalytic Psychology*, 33(1), 106-128.
- Schneider, B., Schnabel, A., Wetterling, T., Bartusch, B., Weber, B., & Georgi, K. (2008). How do personality disorders modify suicide risk?.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3), 233-24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pp, S. D., Lazarus, S. A., & Byrd, A. L. (2016).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 prospectively associat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4), 316-323.
- Stoltenborgh, M.,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3). The neglect of child neglec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prevalence of neglec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3), 345-355.
- Stone, M. H. (1990). *The fate of borderline patients: Successful outcome and psychiatric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Terr, L. C. (1992). Mini-marathon groups: Psychological "first aid" following disaster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6(1), 76.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Trull, T. J., Useda, D., Conforti, K., & Doan, B. T. (199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2. Two-year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307-314.
- Trull, T. J., Jahng, S., Tomko, R. L., Wood, P. K., & Sher, K. J. (2010). Revised NESARC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gender, prevalence, and comorbidity with substance dependence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4), 412-426.
- Weiss, M., Zerkowitz, P., Feldman, R. B., Vogel, J., Heyman, M., & Paris, J. (1996).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of mother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ilot stud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5), 285-290.
- Widiger, T. A., & Trull, T. J. (1993).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In P. B. Stuker & H. E. Adams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2nd ed.) (pp. 371-394). New York: Plenum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0. 05.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7. 22

게재결정일 : 2020. 08. 10

The Impacts of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o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Jung-Moo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udent

Nam-Woon Chung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secure adult attachmen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entalization. A total of 317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with data from 295 analyzed. The analyses indicated that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affecte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by impacting the mediation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Additionally, mentalization moderated the impact of attachment anxiety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inally, mentalization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neglect, attachment anxie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is implies that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impedes the development of secure attachments and affect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mentalization reduces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resulting from childhood emotional neglect.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al Neglect, Insecure Attachmen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Mentalization